

해남읍 원도심에 '청년의 거리' 조성

일자리 상담 청년센터 7월 개관 해남천 인근 청년플랫폼 '속속'

해남 원도심이 활기 넘치는 청년의 거리로 조성된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천을 따라 형성된 원도심은 매일시장을 경유하는 해남읍 중심상권이었으나 시외지역 개발과 인구 감소 등으로 공동화가 가속되고 있다.

해남군은 천변 일대에 청년 기반시설들을 잇따라 조성해 청년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청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7월 해리 천변 인근에 청년센터를 개관한다.

청년센터는 연면적 349㎡ 지상 2층으로 1층은 카페 등 열린 공간을, 2층은 사무실·강의실 등으로 구성된다.

청년센터는 청년 일자리 정보 제공과 상담, 청년 창업 지원 및 문화 활동 등 누구나 방문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맞춤형 강좌 운영은 물론 청년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9월 청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년문제 인식 제고를 위한 청년 어울림마당을 개최할 계획이다.

어울림마당은 젊은 층의 관심이 높은 플리마켓·버스킹 등 각종 문화 행사를 선보이고, 인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청년축제로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해남천변 일대를 청년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활기 넘치는 청년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 <해남군 제공>

앞서 3월 말에는 청년센터 인근에 청년 먹거리문화 크리에이티브 캠퍼스를 조성했다.

먹거리문화 크리에이티브 캠퍼스 사업은 청년들에게 공유주방·공유오피스 공간을 제공해 차별화된 젊은 감각의 먹거리 콘텐츠 기획과 창업을 지원하게 된다. 장소는 천변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마련했으며, 같은 건물에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도 들어선다.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협업 업무도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 상반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와 작은영화관이 문을 열고, 매일시장과 5일시장 인근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해남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되는 등 구도심 활성화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청년센터를 비롯한 청년 플랫폼이 들어서고, 해남읍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생생한 목포 소식 전달 SNS 주부기자단 뜬다

목포시는 목포 홍보와 봉사 위해 SNS주부기자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부기자단은 새로 7명을 추천받아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SNS 공식 채널을 통해 목포시정과 목포 관광을 홍보한다.

박경숙 주부기자단 회장은 "주부기자들은 모두가 목포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며 "앞으로도 목포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목포관광 활성화를 위해 목포만의 매력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중식 목포시장은 "시정을 잘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 못지않게 잘 듣고 제대로 알려 공감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홍보도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소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진도 특산품매장 '명품관' 새 단장

58개 업체 432개 품목 오후 7시까지 연중 무휴

진도군은 청정 농수특산물판매장인 '진도 명품관'이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재개관했다고 11일 밝혔다.

진도읍 남동리 일원에 있는 '진도 명품관'은 진도 우수 농수특산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진도군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판매장이다.

구기자·울금·전복·감·미역·검정쌀 등 전남지사과 진도군수 품질인증을 받은 진도지역 농수특산물을 전시·판매한다.

청년 농어부와 귀농인·농산물가공 지원센터에서 직접 생산·가공한 제품 등 58개 업체 432개 품목이 진열됐다.

농·어업인은 판로 확대, 소비자는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운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중 무휴다.



이동진(왼쪽) 진도군수가 지난 10일 재개관한 '진도 명품관'을 둘러보고 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관계자는 "정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을 홍보하고 특산물에 대한 새로운 판로 개척으로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무안군과 자매도시인 경북 성주군은 지난 9일 비대면으로 우수농산물 교류 판매 행사를 열었다.

무안군-성주군, 비대면 우수농산물 교류전

2013년 자매결연 꾸준한 상생

무안군은 지난 9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비대면 농산물 유통 확대를 위해 자매도시인 경북 성주군과 우수농산물 교류 판매 행사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차단 방역을 위해 양 기관 직원들로부터 사전 주문받은 물량을 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무안군은 5kg 고구마와 아이스 고구마 321상자를 성주군 보냈고, 성주군은 2kg과 5kg 참외 392상자를 무안군에 보내왔다.

무안군과 성주군은 지난 2013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꾸준히 농·특산물 교류를 이어오며 대표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고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생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호응을 얻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나눔 세상 온정의 손길

완도 노화도 출신 기업인, 마스크 43만장

완도 노화도 출신 기업인 이정환(48) ㈜에스와이인더스트리 대표가 완도군의회에 덴탈 마스크 43만2000장을 기탁했다. <사진> 이 대표는 노화읍 포전리 태생으로 경기도 시흥 시화공단에서 에스와이인더스트리를 운영하고 있다. 특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 마스크를 제작해 유통 중이며 '2021 한국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이 대표는 "국민 모두가 회생을 감수하며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며 "완도 출신 기업인으로서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선행을 고향에 실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환 대표(노화읍 출신) 마스크 432,000매 기탁. <사진> 이 대표는 "국민 모두가 회생을 감수하며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며 "완도 출신 기업인으로서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선행을 고향에 실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 낙월면 자율방범대,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영광군 낙월면 자율방범대는 최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영광사랑상품권 200만원 어치를 영광군에 기탁했다. <사진> 낙월면 자율방범대는 10여명의 회원이 지역의 안전과 화합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낙월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민 화합을 위해 앞장서 헌신하고 있다.

최연진 낙월면 자율방범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우 기자 jylee@kwangju.co.kr



영광군 낙월면 자율방범대는 최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영광사랑상품권 200만원 어치를 영광군에 기탁했다. <사진> 낙월면 자율방범대는 10여명의 회원이 지역의 안전과 화합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낙월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민 화합을 위해 앞장서 헌신하고 있다. 최연진 낙월면 자율방범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우 기자 jylee@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페이지,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과 상담]